

삼남길 조성과 운영모델

A Study on "SAMNAM-Road" development and operating model

김 선 혜, 김 상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seon-hye, Kim sang-heon*

HANKUK Univ., HANKUK Univ.*

요약

경기도 삼남길은 조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참여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고 있다. 특히 참여기관이 지닌 특성을 집중시키고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길 조성 단계부터 이후 프로그램 운영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삼남길의 성공적인 운영체제를 통해 도보길의 적절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도출하고 지속적이고 활발한 도보길 운영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론

‘삼남대로’는 조선시대 확립된 6대로 중에서 한양과 충청, 전라, 경상을 잇는 1,000리에 달하는 길이다. 경기도 구간인 과천-평택 구간은 약 90km이며 최근 경기도는 ‘삼남길’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하였다. 현재 삼남길은 수원, 화성, 오산구간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고 과천, 안양, 의왕, 평택 구간은 곧 개통 예정에 있다. 삼남길은 옛 길인 삼남대로를 고증하고 개발되어 걸을 수 없는 길은 우회로를 설정하여 조성하였고 인근의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역사탐방로이자 문화유산 탐방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삼남길은 조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참여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는 삼남길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본 글에는 삼남길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조성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참여기관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도보길이 조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도보길의 활성화 운영모델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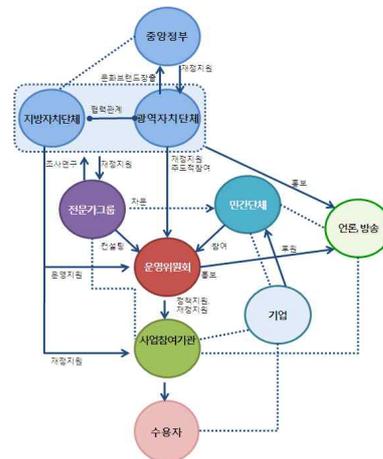
II. 운영체계 및 역할

경기도 삼남길은 조성과 운영에 있어 민(民)·관(官)·산(産)·학(學)이 참여하고 있다. 먼저 민으로 대표되는 기관은 (사)아름다운 도보여행으로 도보길 개척과 보수를 맡고 있고 경기도와 7개 해당구간 자치단체는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오롱 스포츠는 경기도 삼남길 조성을 위한 안내판과 표식작업을 위한 리본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이 옛길 고증과 활용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삼남길의 참여주체별 역할

참여주체	역할분담
경기도	예산·행정지원, 정책개발
해당 자치단체	예산·행정지원
경기문화재단	문헌연구 및 고증, 활용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아름다운도보여행	길 개척, 활용프로그램 운영
코오롱스포츠	후원 및 홍보

위에 제시된 운영모델은 각 기관이 지닌 특성을 집중시키고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길 조성 단계부터 이후 활용프로그램 운영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보다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형태는 사업을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고 그 외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그림 1. 거버넌스 구축 모델[2]

이러한 모델은 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상호의존적, 수평적,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3] 나아가 운영 위원회를 둬으로써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는 수용자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가 제공된다.

Ⅲ. 삼남길 조성 및 운영 현황

경기도 삼남길은 조성에서부터 운영까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삼남길의 조성과정은 자료조사 및 기초 연구를 거친 후 탐방로를 조성하였다. 기초 자료조사에 있어서는 근대 이전의 고문헌 및 고지도를 통해 조선 옛길의 원형을 찾고 근대 이후 조선옛길의 항공사진 및 실측도를 대조하였다. 그 결과 도로로 개발되거나 훼손되어 막힌 구간은 대체로를 개척하여 우회하도록 하였고 탐방로 인근의 문화유산을 코스에 적극 반영하였다. 각 지역의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였고 도보길 인근의 문화유산 답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도보와 동시에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났다.

현재 경기도 삼남길은 조성 이후 보수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조성 이후 참여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2. 삼남길 운영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운영기간	내용
경기도옛길 아카데미	년4회	교양강좌를 통한 옛길 관리요원 양성
멘토와함께 걷는 옛길	월1회	멘토와 삼남길 걷기
클린옛길	년4회	환경정화
삼남길 종주	월1회	도보여행단체와 도보객들의 종주

현재 삼남길을 활용한 운영프로그램은 대부분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삼남길 종주는 (사)아름다운 도보여행에서 주관하고 있다. 경기도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계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삼남길 운영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거버넌스 중 운영 위원회에 지역주민이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경기도옛길 아카데미는 현재 길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경기도 삼남길과 관련된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적인 수업과 함께 도보길 답사 2회, 주변 문화유산의 심층적인 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아가 아카데미 이수자를 중심으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도보여행객에게 해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해설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도보길과 관련된 운영프로그램은 걷기대회와 종주에만 그치는 것이 현실이었으나 경기도 삼남길은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길 개발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후 관리의 미흡함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길 개발 및 운영활성화의 우수사례로 볼 수 있다.

Ⅳ. 결론

최근 불고 있는 도보열풍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도보길 만들기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도보길은 조성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삼남길은 자연경관이 제주올레처럼 수려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위치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언론매체의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도는 향후 조선 6대로를 2015년까지 모두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조선옛길의 전국구간을 완성한다면 이는 향후 전국의 문화유산을 도보로 통해 선(線.)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유산 도보관광”이 생겨날 것이다.

경기도 삼남길은 조성부터 조성 이후 프로그램 운영까지 관계기관들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삼남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하여 도보길 조성에서부터 프로그램운영까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길 조성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보환경 유지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 [1] 경기도 “경기 남부 역사문화탐방로 개발 및 활용연구”, pp.4-8, 2012.
- [2]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수도권 광역경제권 역사문화콘텐츠 활성화 및 활용전략”, p.62, 2012.
- [3]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수도권 광역경제권 역사문화콘텐츠 활성화 및 활용전략”, p.59, 2012.